

성명	김채은	수험기간	2022.09.~2024.07.
학교	연세대학교	전공	컴퓨터과학과
키워드	동차 전체7등		

들어가며

[인사말]

안녕하세요. 제61회 변리사 시험에서 동차로 합격하게 된 김채은입니다.

저는 2022년 여름방학, VC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9월에 복학해 몇주간 진로 고민 끝에 변리사 시험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60회 1차 시험을 보려면 당장 휴학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휴학을 해도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60회 1차는 패스하고, 61회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길었던 1차 준비 기간에 2차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1차 기간에 2차 공부를 섞어서 하는 것은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200명의 200가지의 공부방법 중 하나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민법	기 본 강의					민법공방 회독			민공연			최판	기출	
특허			기본강의			중급		기본서	회독/ 기출				객관식	
특허 2차				기 초 gs(한)	실 전 gs(한)									
상표				기 본 답 안 입문	실전gs (한경 훈)				기본서 회독 / 객관식					
민소						기본	사례							
디보								기본						
물리								객관식						
화학	기본강의							객관식						
생물									회독					
지학										기본				

2024	3	4	5	6	7
민소	심화강의	이창한A	이창한 기초 곽준형A	이창한B 곽준형B	전과목 모의고사
특허	기초gs+		박형준B 박형준A		
상표	테마사례집	김세원 실전	김세원 콜라보	정혜진 콜라보 최지환B	
디보		김웅 기초		김웅 실전	

볼드는 현장강의 수강

[점수]

1차: 산재 87.5 / 민법 92.5 / 자연과학 65

2차: 특허 56(24p) / 상표 61.33 (20p) / 민소 65.66(24p) / 디보 69(21p) (3법 평균 61)

## 1차 공부

### 【민법】 92.5점

#### ☑ 강의, 교재

2022 민법 기본강의, 민법공방 5판 -> 6판, 민법공방연습

#### ☑ 시기별 공부내용

- 2023년 1월 기본강의 완강
- 6월 민법공방 회독
- 9월 민법공방연습 시작
- 12월 최신판례
- 2024년 1월 1일1기출

#### ☑ 공부방법

##### (1) 기본강의, 기본서 회독

2022년 2학기 학기병행에 학회활동까지 있어서 공부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변리사 민법강의를 수강하면서 법을 처음 접해본 공대생이라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배속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들으면서, 쟁점이 바뀔 때마다 강의를 정지하고, 책을 읽고 머리속에 상황이 그려지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느라 1시간짜리를 1시간30분동안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수기를 읽어보면 하루에 6-7강씩 몰아서 듣고 빠르게 복습에 들어가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그러한 공부방법이 찝찝해서 느리게 듣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기간에는 공부를 하지 못해 2022년 12월말까지 물권법 절반 정도 수강했습니다. 2023년 1월 중순에 민법 기본강의를 완강하고, 민법공방 5판에서 6판으로 밑줄을 옮기면서 회독했습니다. 회독 때 앞부분은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느낌이었고, Ox 문제도 풀었습니다.

6월 이후 기본서를 회독할 때는 목차의 준위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에서 '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나. 착오가 중요한 부분일 것, 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라. 별도의 사유가 없을 것, 마. 주장증명책임'이 있겠습니다.

준위가 같은 목차에는 똑같은 형광펜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이게끔 했습니다. 이는 시험 직전에 회독의 시간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대목자, 중목자, 소목차별로 색깔 규칙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워지는 형광펜을 사용했습니다.

#### ☑ 객관식(이하 민공연)

민공연 2회독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면서 동시에 해설을 읽었습니다. 두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때 틀린 것은 /, 다시 봐야할 것 같은 것은 V를 표시했습니다. 3회독 때는 / V 표시만 봤습니다.

4회독은 문제만 먼저 다 풀 뒤에 채점을 했고, 평균 95%의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11월이었는데 이쯤부터는 학원 모의고사를 봐도 민법은 95점 내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 ☑ 기출문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김동진 강사님이 카페에 연도별 기출문제를 올려주십니다. 실전감각 유지를 위해 하루에 한 회차씩 풀었고, 총 두 번 풀었습니다.

## ☑ 기본서 vs 객관식

기본서파 vs 객관식파로 나뉘는데, 안정적인 점수대로 안착할 수 있던 결정적 원인이 객관식이라고 생각해서, **12월까지**는 **객관식파**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전 김동진 강사님이 올려주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출제 의도가 곧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30몇문제 중 4개를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객관식은 과거에 출제된 데이터만 보게 되어 유기적 사고에는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는 기본서 대 객관식 비율을 2:1로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빠르게 80점에 도달하려면 객관식, 안정적인 90점대를 받으려면 기본서가 메인이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 【산업재산권법】 87.5점

59기로 합격한 변리사님의 조언을 받아, 2월말~3월에 특허, 상표 전년도 1차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2023년 4월에 2차용 기초 / 5월에 실전gs를 현강으로 들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는 산재법 개정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 ☑ 강의/교재

특허법: 임병웅 변리사 기본강의, 중급강의

/ 리담특허법, 리담객관식(2022), 조판기, 해례 모의고사 12회분 pdf

상표법: 최지환 변리사 기본강의 / 최지환 기본서&요약서, 리담객관식

디보: 김웅 변리사 기본강의 / 김웅 변리사 기본서, 기출, 객관식

## ☑ 특허법 (19/20)

### (1) 기본강의 수강

민법은 기본강의 수강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특허법 기본강의부터는 나름의 리얼마인드가 잡혀서인지 빠르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1.4배속으로 하루에 5~6개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하루 뇌 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6강을 넘어가면 머리속에 박히는 효율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무리하게 진도를 빨리 빼지 않았고 대신 공부 시간이 남으면 화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 (2) 접근법

특허법부터는 민법과 달리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처럼 쟁점을 각개격파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민법보다 훨씬 휘발속도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강의를 들을 때마다, '특허법이 왜 탄생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수강했습니다. 따라서 각 절차나 제도의 존재와 취지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 (3) 1차 시기에 2차 공부의 장점

임병웅 변리사님은 기출문제 선지를 보면 조문, 판례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2차 공부하다가 1차로 돌아오니 판례형 선지를 삼시생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해당 선지의 정오와 함께 논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 (4) 1차 시기에 2차 공부의 단점

'2차 공부 경험이 있으니 1차는 수월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주로 판례 기반이고 A급 논점 관련 법조문만 보게 되는 반면, 1차는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보칙까지 동등한 중요도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1차 때는 법조문의 중요도를 함부로 속단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리담 특허법을 다시 펴보니, 1차에서 기출문제화되었던 부분에 필기가 있는 반면, 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차 기본강의 수강 직후 기초gs로 넘어가면서 1차용으로 배웠던 내용이 다 덮여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 공부방법

- 기출문제집 대응으로 '조판기'의 기출파트 ox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 리담특허법 객관식(2022)을 풀었습니다. 이미 판례는 많이 학습된 상태라 절차, 제도, 법조문 파트만 풀었습니다.
- 해례 모의고사 12회분을 구매해 총 3번 풀었습니다. 민공연과 마찬가지로 2회독까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고 3회독은 틀리거나 중요표시한 문제만 보았습니다.
- 법조문 pdf에 단권화했습니다. 지엽적인 단어 하나를 바꿔 문제화되는 부분에 형광펜을 칠하고, 암기용두문자를 표시하고, 반복해서 틀리는 부분을 적었습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단권화했습니다.

## ☑ 요약서 - 조판기

다시 1차 공부로 넘어오면서 시간효율성 요약서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책 중 '조판기'에는 조문, 판례, 기출이 모두 있어 2차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문, 판례, 기출이 각 섹터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책이 좀 두껍더라도 원하는 섹터를 선택해서 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상표법 (9/10), 디자인보호법 (7/10)

2023년 3월 중순에 약 3주간 최지환 변리사님의 2022년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4,5월은 2차 공부를 하다가 6월부터 리담상표법 객관식을 풀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8월 중순에 1주간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출문제도 함께 풀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심사기준을 따로 챙기지 않아 저득점했습니다. 꼭 심사기준도 챙기세요!

## 【자연과학개론】 65점

고등학생 때 '정시러', '논술러(생논)'였습니다. 과탐은 물1, 생1을 하다가 고3 때 지구과학 표점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생1, 지1으로 바꾸었습니다. 변리사 시험 준비하면서 물리, 화학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태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 ☑ 물리 (6/10)

2022년 9월에 시작해, 12월에 손용욱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완강했습니다.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2023년 8월에 다시 1차 공부로 넘어와서는 먼저 기본서 1회독을 하고, 객관식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7개를 목표로 삼았고, 1번을 틀려 6개 맞았습니다.

## ☑ 화학 (5/10)

물리 기본강의 완강 후 원동신 강사님의 기본강의 수강했습니다. 다만, 저는 화학 전공자도 아니고, 수능 선택과목도 아니었기에 유기화학 파트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계산형 문제는 꼼꼼히 대비했고, 화학을 물화생지 중 가장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실수로 13, 18번을 틀려서 5개 맞았습니다.

## ☑ 생물 (8/10), 지구과학 (7/10)

생물은 논술까지 준비했던 터라 암기부담이 적었습니다. 이영렬 변리사님의 '따뜻한 생물'을 회독했습니다. 지구과학은 10월에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생물은 시넵스, 지구과학은 박준희 강사님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와 단원별 문제를 풀었습니다.

겨울에 슬럼프가 와서 그때부터는 두꺼운 생물, 지구과학 기본서까지 읽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A4종이를 세로로 4등분해 암기장을 만들었고 시험 전날까지 A4종이만 봤습니다. 생물은 4장, 지구과학은 3장 정도 나왔습니다.

## 【1차 시기에 2차 공부 관련 내용】

진입시기가 애매하신 분들, 부진정 동차, 힘든 동차 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시기에 2차를 한다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리스크가 있는 공부법입니다. 제 공부과정을 참고만 하시거나 신중히 선택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 ☑ 특허법

4월 기초gs, 5월 실전gs 모두 한승준 변리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1) 4월 기초gs

기초gs는 먼저 강사님이 기본개념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주부터 쓰기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더 잘 흡수하기 위해 리담특허법 회독으로 예습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을 안 보고 쓰고 싶어서 평일 내내 한특허법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문장을 쪼개서 외워도 보고, 걸어다닐 때 보려고 암기장도 만들어 보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특허법을 처음 접한지 한달이 조금 넘은 상태라 외워질리가 없었습니다. 표시해둔 두문자만 눈에 익숙해지는 정도였습니다. 실제 쓰기에서는 다 책을 보고 썼습니다. 이때는 책을 펼쳐봐야 '아 이 쟁점을 묻는 거구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동안 6pg 작성했습니다.

#### (2) 5월 실전gs A

한승준 변리사님의 실전A는 진도별로 출제됩니다. 평일에 한특허법에서 해당하는 진도 대략 100pg를 회독해갔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책을 다 보고 썼고, 제 기억에 4번문제까지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초gs보다는 문제를 읽고 쟁점이 캐치가 가능한 것이 더러 있었고, 점수는 주로 30점대를 받았습니다. 가장 높게 받았을 때가 39점이었습니다.

### ☑ 상표법

#### (1) 4월

최지환 변리사님의 2차 기본강의와 답안작성 입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답안작성 입문강의는 반쯤 풀다가 포기해서 완강하지 못했습니다.

#### (2) 5월 - 한경훈 변리사님 실전gs

답안작성 입문강의도 완강하지 못하고 수강하게 되어서 4번 문제를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평균 14pg 정도 작성했었고 등수는 80~90%였습니다. 가장 높은 등수를 받았을 때가 기본서에서 읽었던 내용을 바로 써본 날로 기억하는데 60%대였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 gs 문제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이때 취소심판 파트를 제대로 배워갔던 기억이 납니다.

#### (3) 포기

5월 중순, 특상 2차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머리속에 '암기는 결국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지금 한다고 당장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특상에 투자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혹시 이 수기를 읽으시는 분 중 저와 같은 길을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더라도 자신의 한계에는 부딪혀 보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지난 수험기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때 가장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때 억지로 외우고 눈에 바른 두문자가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 ☑ 민사소송법

5월16일부터 순서대로 i)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 4주, ii) 통합 1회독, iii) 사례강의 1달, iv) 통합민소 2회독했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때 복습 없이 진도만 나갔기에 사례강의 전 통합을 회독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 2차 공부

### 【기본서에 형광펜 칠하기】

과목별 공부법을 논하기 앞서, 제 형광펜 사용법부터 적겠습니다. 각자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 베스트지만, 저의 경우 아래의 방법이 답안지에 살려야 할 키워드를 표시&암기하고 회독 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4월에는 3가지 색깔만 사용했습니다.

**노란색:** 키워드 / **핑크색:** 답안지에 작성할 목차들 / **하늘색:** 학설이름

강의를 수강하면서 동시에 형광펜 작업을 했습니다. 강사님도 사람인지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복/강조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이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노란색으로 모두 표시했습니다.

특히 특허법에서는 가끔 박형준 강사님이 '이건 중요해요'하면서 짚어주는 목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6.10 결합발명 진보성 파트에서 '2. 진보성 판단대상, 5. 용이성 판단방법, 5-1. 선행문헌 결합요건, 5-2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부분에 핑크색으로 칠해서 나머지 것들과 차별을 두었습니다. 즉, 내가 답안지에 올릴 요소는 목차에 핑크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학설이름에 하늘색 형광펜 칠하기는 민소법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회독하다가 자연스레 형광펜 부분에 눈이 가게 되는데, 어떤 학설은 학설 이름만 알아도 내용을 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통설/소수설로만 외워도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속적 관할합의에서 '통설, 소수설',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에서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중복소제기 여부에서 '확인소, 후소, 부정설, 긍정설, 확인의 이익 처리설' 등이 있습니다.

4월말에는 폰 gs가 쌓이면서 2가지 색깔을 추가했습니다.

**주황색:** 그동안 놓친 키워드 or 노란색과 대비되는 키워드

**보라색:** 핑크색과 목차 준위를 구별하기 위한 용도 or 요건

### 【민사소송법】 65.66점

#### ☑ 교재

통합민사소송법, 사례민사소송법, 진도별민소법기출문제(핸드북)

#### ☑ 3월

1차 시험 이후 2월27일부터 1달 동안 민소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 시청 전 반드시 진도 나갈 내용을 미리 읽어보았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민소 강의 수강, 6시 이후부터 특허법 상표법을 공부했습니다. 심화강의 완강 직후 바로 통합 하루 30p 전화암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 ☑ 4월

민소 전화암기 스터디를 하루 40p로 늘리고, 이창한 실전A를 수강했습니다. 문제만 읽고 목차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책 없이는 거의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 4월 3gs 마지막 타임에 민소를 수강하느라 체력적으로 지쳐, 문제3번쯤 풀다가 포기한 경우도 많았으며 gs 등수는 95% 였습니다.

이때의 저는 정말 쪼렙이었는데, 당장의 점수를 높이려고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기 보다는 민소법은 양이 원체 방대하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던 통합민소 회독과 전화암기 스터디를 꼭 밀고 나갔습니다. 이때까지 사례집은 보지 못했습니다.

## ☑ 5월

4월에 실전A를 수강하며 목차의 흐름이 중요한걸 깨닫고 사례집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조금만 더 버티면 암기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여전히 통합의 비중을 높게 가져갔습니다. 통합 대 사례 비율은 3:1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이창한 기초gs를 수강하고 객준형A를 풀었습니다. 객준형A는 정말 망할 때가 태반이었지만, 모두 책을 보지 않고 풀었습니다.

## ☑ 6월

이창한 실전B를 현장에서 수강하고, 평일에 객준형B를 풀었습니다. 이창한B는 최고 3% 최저 30% 등수를 받았습니다. 체감상 이창한B 등수는 누락이 있으면 10% 초중반이 뜨고, 답이 틀리면 20% 이하가 났습니다.

이때부터는 통합 6일1회독이 가능해져 사례집의 비율을 올렸습니다. i) 문제를 먼저 읽고 ii) 목차를 머리 속으로 떠올린 뒤 iii) 놓친 부분만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6월동안 사례집을 총 2회독 했습니다.

## ☑ 7월

평일 1주간 통합 1회독, 핸드북 1일 1회독x2번, 사례집 봐야하는 것 인덱스 붙이기 루틴을 매주 반복했습니다. 7월에는 기출문제 형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핸드북 비중을 높였습니다.

## ☑ 시험 전날/당일

1일차가 끝나고, 독서실에 5시쯤 도착해 사례집만 1회독 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정석적 풀이가비교적 친절하게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통합에서 내가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통합을 주교재로 선택해서 암기 강박이 생겼는데, 문제1 모든 설문을 읽고 답안 작성 시작할 때 그제서야 그 부담감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조문을 병기하기' 입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1 설문(1) 10점 배점을 총 3pg 작성하느라 시간에 쫓겨 조문 병기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을 병기했다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특허법】 56점

### ☑ 교재

기본서: 준특허법 / 판례집: 준특허법 / 사례집: 준특허법 사례(상) 기출, 해례 특허법 사례집

### ☑ 사례집에 대하여

저는 특허법과 상표법 사례집은 강사님을 달리하여 두 권의 교재를 섞어서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인데요, 첫째는 진도별과 연도별로 보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강사님마다 차별점을 두기 위한 포인트를 취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허/상표 사례집은 강사님이 기출문제를 해설한 것이라 내용적으로는 80% 이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목차의 전개방식이나 추가득점을 위해 적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기출문제에 대한 두 가지 풀이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제가 쓸 답안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 ☑ 시기별 공부방법

#### (1) 3월

2023년에 이미 한승준 변리사님의 기초gs와 실전A를 모두 수강했기에, 곧바로 실전gs에 들어가 기득 이상들과 겨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 직후 박형준 변리사님이 2차 수험 상담에서 극구 반대를 하셨고, 3월에 기초gs+를 현장에서 수강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박형준 변리사님 조언을 따랐던 것이 제가 비교적 무난한 수험생활을 보낸 가장 큰 요인이자 않았나 싶습니다. 곧바로 실전gs부터 수강했다면 구멍만 생기고 암기 부담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급



하게 가지 않고 기본기를 다졌더니 6월부터는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기초gs+ 강의를 들으면 평일에는 복습위주로 공부하며 암기에 돌입했습니다. 예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 2주차까지 총알로 암기했는데, 점점 암기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총알을 버리고 준특허법으로 암기했습니다. 마지막주 특유발명, 특유 청구항 파트를 제외하고는, 책을 안 보고 썼습니다. gs 등수는 한 자리 수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 (2) 4월

해례 사례집 쓰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3월에 기초gs+에서 진도나간 부분을 복습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한번은 기초gs+ 쓰기에서 3월 초반에 배운 결합발명의 진보성 파트가 불의타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저는 직전 사례집 스터디에서 써보았기 때문에 책을 펼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 (3) 5월, 6월

박형준 실전B는 현장 수강하고, 실전A는 1주에 1회씩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5월에는 시간상 해례 스터디는 그만 두었고, 특허/상표 기본서를 평일에 1회독씩 했습니다.

6월에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사례집을 '양적 확장용'으로 사용하라는 조언에 따라 pct 파트와 실전B에서 스스로 아쉽게 풀었다고 생각한 거절이유 대응 조치, 등록가능여부 판단 등 절차, 조치 파트를 선별해 풀었습니다.

## (5) 7월

마지막 7월에는 준특허법 1주1회독, 타판판례 4개년치 암기, 준특허법 사례(상) 기출 2회독했습니다. 기출문제는, 민사소송법 사례집 회독 방법과 동일하게, 목차만 잡아보고 누락한 것을 형광펜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회독했습니다.

추가로 해례 특허법 사례집에서 조치, 절차, 이익제도, 법조문 쪽 파트를 총 3번 풀었습니다. 암기형 문제는 자신 있었고, 출제자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수강생이 400명에 달하는 박형준 실전gs에서 이미 주요 최신판례를 모두 문제화했기 때문에,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문제'가 아닌 '중요한데 평소에 소홀이 한 부분'으로 변별력을 가르고 싶어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제 경향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강사님은 실전gs에서 제대로 암기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서나 gs와는 별개로 법조문과 절차적 사항에 대해 묻는 문제를 따로 준비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 【상표법】 61.33점

### ☑ 교재

기본서: 테마 / 판례집: 테마 / 사례집: 테마, 데생

### ☑ 시기별 공부방법

#### (1) 3월

원래 3월에 한경훈 실전gs를 수강하려 했으나, 특허 기초gs+를 수강하는 바람에 시간표상 상표 실전 gs를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3월에는 혼자 기본서 회독하고, 진도별 사례집의 목차를 잡았습니다.

#### (2) 4월

주말에 김세원 실전gs를 수강하고, 평일에 상표법 판례 전화암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실전gs의 경우, 암기 덜되어서 미리 논점표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주에 논점표에 있는 쟁점만 암기한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에 논점표를 보고 아직 암기가 부족한 파트를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에 붙였습니다. 기본서를 회독하다 해당 파트가 나오면 꼼꼼히 암기하고 주말 gs에서 책을 보지 않고 썼습니다. gs 등수는 평균 20%대였고, 6회차쯤 saboo 판례 타깃 문제에 말려서 망했을 때 95%를 받았습니다.

전화암기 스터디의 경우, 하루에 판례집에 실린 판례 5개를 외우고, 스터디원이 그 중 하나를 임의로 물어보면, 판결요지부터



사안포섭까지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예 책을 안 보고 술술 설명할 때도 있었고, 주로 한두번씩 책을 힐끔 보며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 ☑ 5월, 6월

저는 한 우물을 파는 스타일이라 5월에는 4월 실전gs와 같은 김세원 강사님의 콜라보 gs를 수강했습니다. 6월에는 정혜진 강사님의 콜라보 현장수강, 최지환B를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5월부터는 논점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기본서를 1주 1회독, 판례집을 회독을 병행했습니다.

6월에는 그동안 상표법 gs에서 약하다고 생각했던 파트를 데생 사례집을 통해 '양적 확장'했습니다. 마드리드, 지표단 파트를 2번 정도 반복해서 풀다보니 약점이 보완되어서, 콜라보gs 1,2주차에 20등에서 3,4주차에는 모두 9등을 기록했습니다.

## ☑ 7월

판례집과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기본서는 꼭 1주1회독으로 하다가, 시험 전주부터는 3시간 1회독이 가능했습니다. 판례집은 2일 1회독으로 총 3회 반복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시간상 4개년치 정도만 감 익히기용으로 풀었습니다. 시험 직후에는 기출문제에 소홀히 한 것을 크게 후회했는데, 결과적으로 상표법 점수가 높게 나와서 판례집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특히 상표법이 기출문제와 가장 비슷하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시험 마지막 달에는 사례집도 동등한 비중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69점

### ☑ 교재

기본서 김웅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 / 판례집 정다운 pdf / 김웅 실전gs 자료

### ☑ 시기별 공부방법

#### (1) 4월, 5월

4월에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온라인 수강했습니다. 5월에는 4월에 수강한 내용이 휘발되지 않게 1회독은 꼼꼼히 했고, 2회독은 빠르게 진행해서 총 2회독 했습니다.

#### (2) 6월

김웅 변리사님의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1주차에는 책을 보고 썼습니다. 특히,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도면 파트는 실전gs 쓰기 시간에 책보고 암기한 후 책을 덮고 혼자 써보았는데, 이번에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크게 나와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주차부터는 책을 보지 않아도 쓸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과 겹치기도 했고, 법전을 펼쳤을 때 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기본서를 정독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저는 GS자료 8회분을 스프링 제본해서 암기했습니다. 6월에 스터디하러 신촌 가는 버스에서 많이 암기했습니다.

#### (4) 7월

시간과 체력 상 디자인보호법에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려웠고, 밥먹는 시간에 gs 자료와 정다운 변리사님 판례집 pdf를 보았습니다. gs자료의 경우 2회차/1일 \* 4일 = 8회를 1주일 단위로 회독했습니다.

#### (5) 시험당일

나름 민소법을 깔끔하게 잘 봤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긴장이 풀려 그냥 쉬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천천히 gs 자료만 1회독했습니다. 그런데 1문 영업양도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후회했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허법 공부할 때 정정의 기속력이 출제될 것 같아 열심히 외웠는데, 정작 특허법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기속력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이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겹치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매년 출제경향이 바뀌므로 gs자료만 암기하는 공부법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공부시간】

저는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며, 공부량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하루에 계획한 공부량을 달성하면 저녁 7시에도 귀가하곤 했습니다. 1차 때는 하루 평균 7시간, 2차 때는 오전 9-10시 사이에 독서실에 도착해서 밤 9시쯤 집에 갑니다. 시험 직전에는 독서실 도착시간을 오전 8시로 당겨서 공부시간을 늘렸습니다.

## 마치며

항상 '엄마 아빠는 우리 딸을 믿어'라고 말씀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단 한 번의 간섭 없이 무한한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마음은 참으로 깊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려심이 많아 점점 오빠 같아지는 동생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험기간동안 항상 응원해주고 걱정해준 친구들,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강사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수험생활을 보내고 계실 많은 분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에 62기 변리사로 뵙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ang0788@yonsei.ac.kr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